

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탱화·법종 전시관
 전화: 02-735-1045 / 팩스: 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원집 /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주)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보사를 했다고 하여 은혜 갖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열반경 법행품)

법회 안내

- 정종선원 (02)737-8506
 안락경 강좌 매주 수 오후1시 금강법회 매주 월 오전10시30분 향산전각공부 매주 화·목·토 오후2시 인종기도법회 매일 초하루(음) 지장재일 매일 18일(음)
 학림사 (02)936-1700
 초하루법회 매일 초하루(음) 오백나한법회 매일 보름(음) 지장기도법회 매일 18일(음)
 학림불교회관 (02)932-1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림사 (02)733-532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 7시
 대각사 (02)765-0972
 합창단법회 매주 월 오후1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15분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주 화 저녁7시30분 출복한마음선원(0446)877-0462
 정가법회 매일 첫째, 셋째 일 오전 10시30분 한미유교선원부화 오전 10시30분 정진법회 매주 일 오후1시 보름(음) 오전 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7시30분 목포 보현정사 (0631)76-17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7시 일반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0시
 포항 죽림사 (0562)47-4688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8시 교사회법회 매주 월 저녁8시
 * 이란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소속·성격 명문화하라”

조계종 새 집행부 선학원에 요구

8일 ‘특위’ 열어... 선학원 부산서 대책회의

조계종 새 집행부가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를 본격 공론화해 이번예비로 확산한 결과를 지켰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조계종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선학원 문제에 대해 조계종은 지난 85년 제 84회 총회부터 총회가 열릴 때마다 진상파악과 타개책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개회회의 기간 선학원, 대각회 등 사찰사안 및 타 단체종교 사안에 대해 엄격히 할을 대기로 한 조계종은 지난 9월29일 공포된 개정 중헌에서 강제조치를 청명했다.

중헌 제 9조 3항에서 사실상 입은 반드시 종단에 등록토록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종단에 조계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토록 했다. 4항에서는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사안에 대해 일체의 중부지과 교육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못박았다.

또한 선거법 제 10조 6, 7항을 통해 선거에 나올 수도 포함 자격도 제한시켜, 지난 11월 선거직전 수십 사안이 조

계종으로 명의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고무된 조계종은 지난달 28일 제 114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선학원 대책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15인의 중진 의원으로 위원을 선임했다.

조계종은 지난 8일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선학원에 대해 선학원 정관 제 3조에 ‘내한불교 조계종 중지를 종대하고’를 삽입하고 제 6조에 ‘입원(이사)은 중앙총회에서 조계종 재적승려 가운데 후보로 선출해 추천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기도 했다. 또한 선학원을 조계종의 특별교

구로 선정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한편 교구본사와 같은 자위를 주자는 의견도 대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선학원은 지난 6, 7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클로리온 호텔에서 ‘재단법인 설립인가 60주년 기념법회’를 겸한 전국 분원장 회의를 갖고 ‘선학원·조계종’ 대해 회의를 가졌다.

1백70여명의 전국 분원장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선학원·조계종 문제는 감찰직이나 법적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일단 합의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공식 민방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

으로 전해진다.

또한 아직까지 조계종 새 집행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조계종의 공식입장이 전달되면 12월중 재단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과 선학원 양측이 일단 충분한 협력을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절충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 북은 계종을 바라보는 중도들의 바람이다.

(이경숙 기자)



고구려 고분벽화 ‘예불도’ 정한1호분(일북강 대안소재)의 널길에서 앞방으로 들어서면서 머리를 돌면 보이게 배치된 이 예불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중 처음으로 발견된 불화로 당시의 대중화된 불교신앙을 입증하고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경북공구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대전에는 예불도 외에도 보살도, 연꽃 화상 등의 불화가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승풍진작에 최선 다할 터”

총무원장 월주스님 취임법회 성료

조계종 28대 총무원장 승월 스님 취임법회가 9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동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취임법회는 원로회의의장 혜암스님을 비롯 원로 대덕 스님들과 이민섭 문제부장관 관익현 국회정착회장 민병천

동국대 총장 등 학계 정계 인사, 각 신행단체장,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신임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계승조치와 승풍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 요지 14면)

이날 오후 6시 타워호텔 필코바 홀에서 총무원장 취임 축하 다과회를 개최했다.

부처님전에 향 등 꽃 과일 차 발 등을 올렸다. 이어 총무원장에게 육량장이 봉정재 일기 4년의 총무원장 임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타워호텔 필코바 홀에서 총무원장 취임 축하 다과회를 개최했다.

종토세 등 관계법 개정 촉구

조계종 대 정부건의 군승·복지시설 형평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달 30일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종합토지세 및 토초세 면세 등 세제 개선 △대구 전후 대전 강원지역 불교방송 지방분국 확충 등 7개 항목의 대 정부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에도 이날 전달된 대 정부 건의서는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 및 공동체차금 사용 용도 확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중 10~30% 사찰 배분 명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에도 이날 전달된 대 정부 건의서는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 및 공동체차금 사용 용도 확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중 10~30% 사찰 배분 명

문화 △군내대 종교신자 비율에 따른 군승 증원 및 불교시설의 증설 △사화복지 사업 참여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은 일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깨달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생각하는 두 마음이 간절하면 이에서 이득이 이르도록 물에 그림자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행하고 전하는 우리 불자들은 서로 어떤 동반자의 자리에 있으며, 나는 과연 어떤 동반자인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다. 특히 같은 길을 가거나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가까운 동업동생이다. 이렇게 볼때 불교인분을 일구고 기구다 먼저 지난 선원빈거사를

기리는 선후배들의 정(情)은 동반자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죽음이 그 인연을 단절시킬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선후배 군법사와 스님들, 그리고 신도들까지 동참하여 추모비를 세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셨다.

기리는 선후배들의 정(情)은 동반자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죽음이 그 인연을 단절시킬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선후배 군법사와 스님들, 그리고 신도들까지 동참하여 추모비를 세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셨다.

81세에 컴퓨터 배운 조상원거사 5면

이웃에게 현대불교를 보냅니다

12월5일까지 1천2백여 구좌 접수... 군법당등에 법공양

부처님의 법공과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새로운 정보가 살아 숨쉬는 현대불교는 창간호부터 법공양 운동 시작해 현재까지 1천2백여 구좌의 법공양신청을 접수 받았습니

법공양 하신 분으로는 이주현·오계민 부부 100구좌, 설정수씨 48구좌, 관여형씨 40구좌, 김준성, 김영옥씨 각각 4구좌, 이명희 씨가 100구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법공양으로 전국의 군법당 98개소, 교도소 38개소 등에 1년간 현대불교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동행에 감사드리으며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받아보실분 :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가 선정 무송합니다.
 ◇ 주소 : 110-170 서울 중로구 건지동 110-33 한마음 불교회관
 ◇ 1구좌 1만원 : 1구좌를 신청하면 3개월간 구독 가능하며 구좌 수는 제한 없습니다.
 ◇ 문의 : 본사 총무국 (02)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대호건설주식회사
 DAE HO CONSTRUCTION CO., LTD.

2000년을 향한
 꿈의 실현,
 대호건설의
 의지입니다.

미래건설의 신장조를 이루는 대호건설은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풍요를 생각하며,
 건설산업에서 첨단통신분야까지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세미명상

(주)초세이텔 TV

(주)대호헬스랜드